

# 상생형 모델 '익산형 일자리' '산불 없는 군산' 만들기 총력

지역 소식통

2022년 제4기 군산사랑 SNS 시민 서포터즈' 모집

정현을 시장 '경제위기 극복, 재도약 발판 마련'



정현을 익산시장이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에 중점을 둔 시장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핀셋 정책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익산 미래 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한다.

정 시장은 7일 언론인들과 신년 기자회견담화를 열고 시장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우선 첨단기술 중심의 신산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높여 나간다.

그린·레드 바이오산업 중심의 제2 혁신산단을 조성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홀로그램 산업을 육성해 실감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한다.

각종 실감 콘텐츠와 스마트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에 접목돼 시민들에게

선보여질 예정이다.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백재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홀로그램 등을 활용해 미륵사지를 구현한다. 문화재 디지털 복원과 야간경관을 연출해 명실상부한 세계문화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난해 지정된 법정문화도시를 순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살고싶은 문화도시 익산을 조성한다. 올해 익산근현대아카이브 구축, 마을역사 탐방대 조성, 청년예술인 레지던스 사업, 익산보석사 기념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연초부터 커다란 성과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전제적인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시는 무려 4천여억원이 투입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익산형 일자리'를 추진해 지역의 대표 산업인 농업

과 식품 분야 생태계 전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농산물의 판매망을 전 세계적으로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익산형 일자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올해 초 국토부의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교통 중심지로 자리잡게 됐다.

시는 쿠팡 등 40억원을 투입해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과 노면위험요소 등을 감지하는 도로위험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없이 주민들에게 최적화된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시민에게 각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정부와 전북도 선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시각지체를 발굴해 핀셋 지원에 나선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한 해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며 민생 안정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주력해왔다"며 "올해는 지금까지 준비한 익산의 비전과 가능성에 성장엔진을 장착해 미래 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시, 2022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군산시는 2년 연속 산불 없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산불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과 가을철을 산불피해 최소화 위한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봄철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산불진화대 50명, 산불감시원 50명을 선발해 산불 중점 관리 지역에 배치해 산불감시, 산불 예방 홍보, 산불위험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신속 신고 등 초동 진화와 현장 업무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내홍동 일원에 산불대응센터가 준공될 예정으로 산불진화 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산불진화장비 노후화 방지 등 체계적인 산불대응체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문태 산림복지과장은 "봄철 산행 등으로 야외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산불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 및 소각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노후가 행복한 익산... 어르신 일자리 확대

익산시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손잡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시는 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본부(본부장 이해수)와 함께 '맑은물 지킴이 사업', '농업인소득 및 편의 증진 일자리 지원사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16명을 선발해 2월부터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시범운영하고, 향후 일자리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관별 역할로 익산시는 수요처 확보와 전반적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사업 기획과 총괄, 익산시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기관장 신이원)과 익산시니어클럽(기관장 백종환)은 사업사업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맑은물 지킴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익산시민의 수돗물 위생안전을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

부와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이 기획한 사업으로, 독거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주거지의 수질검사, 실험실 검사를 위한 시료 채수업무를 수행하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민의 안전한 식수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소득 및 편의증진 지원사업'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지원, 농기계임대지원, 토양검정, 작물시험생산 등 업무 수행함으로써 지역농민의 농업환경 현대화 및 소득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코자 한다.

정현을 시장은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은 초고령사회를 맞고 있는 우리 시대에 중요한 현안이다"면서 "향후에도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해 업무공유와 협조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지속적인 협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득훈 기자

## 코로나 의심환자 진료 · 신속항원진단검사 시행

익산 지정 병 · 의원 코로나 대응체계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환

익산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가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코로나19 동네의원을 지정 운영한다.

7일부터 김제형내과 고려 이비인후과 상쾌한 이비인후과가 지정 동네의원으로 운영에 들어가며 차재현의원은 2월 중순경, 예랜산부인과는 3월 초부터 운영 예정이다.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지정 동네의원을 방문하면 진찰 상담을 통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 일반환자 진료를 실시한다. 양성일 경우 보건소에서 PCR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안심하고 호흡기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4개소(익산 병원, 수서병병원, 온누리이동병원, 아이세상소아청소년과)를 지정 운영 중에 있다.

호흡기 질환 등으로 내원 시 진찰 상담을 통해 전문가용 신속항원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 처방 등 일반환자 진료를 실시. 양성일 경우 PCR 검사 및 처방 등 치료가 가능하다.

호흡기 전담클리닉과 지정 동네의원

모두 전문가용 신속항원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5천원~9천원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19 동네의원을 계속 확대 지정 운영하여 신속한 검사와 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KF 80 이상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코로나19 지정 동네 의원은 익산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 /익산=이득훈기자

군산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본격 시행

군산시는 2022년 총 사업비 32억여원을 투입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직접 발굴·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 서비스 등 15개 사업에 905명의 이용자를 선정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16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사업별 기준

정보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했으며, 선정된 대상자는 12개월 동안 각 사업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 결과 복지부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에서 지난 2021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각종 시책 및 행사 등의 홍보를 위한 '2022년 제4기 군산사랑 SNS 시민 서포터즈'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산사랑 SNS 시민 서포터즈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상권과 지역업체 홍보, 골목상권(전통시장) 애용 운동 등 지역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취재하고 개인 블로그와 SNS에 기사를 게시해 대내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2월 7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람(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남현봉기자

군산여성새일센터, 경력 단절예방 지원사업 운영

군산시는 여성재로일하기센터(센터장 최경옥)가 여성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 육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과 상담,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성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직장 재직 여성 대상으로 맞춤형 인사노무상담 컨설팅 외 5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직장문화 개선지원 사업으로 찾아가는 기업 특강 외 3개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군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직등록자 및 연계취업자, 구인신청 및 채용을 진행한 기업, 여성친화기업협약을 맺은 기업이며 신청서 제출 시 담당자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사업 참여를 결정한다.

/군산=남현봉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